

'64세 미혼' 김장훈 "전 연인 이혼 기다린 적 있어"

등록 2026.05.10 17:20:00



[서울=뉴시스] 김장훈. (사진 = FX솔루션 제공) 2024.09.19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강주희 기자 = 가수 김장훈이 헤어진 연인의 이혼을 기다린 적 있다고 밝혔다.

지난 6일 방송된 SBS 파워FM '두시탈출 컬투쇼'에는 가수 김장훈, 황치열, 코미디언 강재준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

이날 DJ 김태균은 김장훈에게 "기사에서 보니 '연애가 20년 전, 스킨십은 15년 전'이라는 게 있더라. 앞으로 연애는 하실 거 아닌가"라고 물었다.

김장훈은 "순리대로 하면 하는 건데 안 할 확률이 높다"며 "고통도 총량이 있듯이 사랑도 그렇지 않나. 나는 진한 사랑을 3.5번 했다"고 말했다.

이어 "전 연인들의 소식을 다 안다. 사랑했던 친구의 남동생과도 만나서 술 마시고 한다"며 "장난처럼 '누나 이혼할 기미 없

냐'고 물었더니 '안돼, 그냥 결혼해. 매형이랑 잘 살아' 이러더라"고 털어놨다.

이에 김태균이 "그분 기다리느라 안 한 거냐"라고 묻자 "그럴 때도 있었다"라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.

김장훈은 또 전 연인의 남동생과 함께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이며 "생선구이 가게 체인점을 생각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zooey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